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됨**

8/29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 4:15-16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빌 4:23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1:9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시작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고 말하며, 이 동일한 은혜가 이 책의 끝에서도 언급된다. 그러므로 은혜는 요한계시록의 끝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끝이기도 하다.

많은 성경 독자들이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을 알고 있으며, 더욱이 그 문장을 암송할 수도 있다. ...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경의 결론의 말씀은 모른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결론인 이러한 절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 함께해야 한다. 이 은혜는 영광스러운 확대와 영원한 표현을 위하여 자신을 사람과 연결하시고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117-1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것은 총체적인 생활이 아니다. 총체적인 생활은 나의 생활 전체가 과정을 거치셔서 내 안에서 은혜가 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총체적인 생활이란 내가 하루 이십사 시간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삼일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움직인다. 두 영이 한 영이 되고, 두 생명이 함께 살며, 두 본성이 서로 연합된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총체적인 생활은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이나 다른 어떤 것에 관한 생활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한 인격의 생활이다. 이 살아 있는 인격의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변화된 사람이 연합된 생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되시며,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산다. 이것이 신약에서 언급된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결된 공동생활로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우리는 따른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움직임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살아 내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복합 되시고 내주하시는 영으로 완결되신 분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 되신다 (고전 15:45 하, 고후 3:17, 계 22:17 상, 히 10:29).

신약 시대에 은혜의 영은 삼일 하나님을 은혜가 되시도록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신다. 은혜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취하는 삶이다.

본질적인 면과 경륜적인 면 모두에서, 다시 말해서 생활과 움직임 모두에서, 그영에 의한 믿는 이들의 생활과 일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분을 은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요 1:14, 16, 계 22:21).

출애굽기 30 장 22 절부터 25 절까지에 언급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가 복합된 것이다. ... 이것은 복합되신 영의 예표로서, 복합되신 영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인간 생활과 부활과 승천이 있다. 이제 복합되신 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름바름으로서 움직이시어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이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3 장, 69-7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성전의 재건을 위해 뒤처지지 않음, 13 장

8/30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4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전 16:23-24

23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 1:14, 16-17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벤전 1:2

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벤후 3:18

18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상)라는 표현은 ...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신성하고 일반적이며 우주적이고 영원한 본성과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교회의 본성과 본질로 소유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고린도에 있는 ... 교회’(고전 1:2 상)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 곧 어느 특정한 지방에 계속 있으면서 교회의 사무적인 행정을 위하여 그

지방을 입지와 터와 행정구역으로 취하는 교회였다. ...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증거의 한 부분, ... 곧 한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그 교회는 그 지방에 계속 있었다. ... 우주적인 증거는 각지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고 이루어진다.(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2 권, 진정한 교회, 영문판, 3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 ...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전 1:2 상). 즉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체현이신 분으로서 교회의 요소와 영역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체현이시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요소와 영역으로 가지고 있다. ... 그리스도는 교회의 요소이시다. 그분은 ... 교회의 범위와 영역이시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고전 1:2 상), 즉 사탄적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이들인 한 무리의 성도들, 거룩하여진 이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안으로는 우리의 요소가 되시고 밖으로는 우리의 영역이 되시는, 놀라우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자격은(고전 1:2 하), 진정한 교회는 온 땅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 장 3 절은 ... 진정한 교회가 ‘은혜’나 ‘평안’의 분배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은혜는 삼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며, 평안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분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은혜이신 그분을 누린 결과이다. 은혜와 평안은 신성한 삼일성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의 과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의 도달이신 성령에게서 교회에게로 분배된다 (고후 13:14). ... 삼일 하나님은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회의 영성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의 기반이다. ... 바울이 고린도전서 1 장 4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에 근거한 것이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는 주로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고후 5:19), 또한 단체적으로 믿는 이들에 관하여(고전 1:30) 사용된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기반으로 받았고 이 은혜 위에 서 있으며, 우리의 속성이나 미덕이나 탁월함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은혜,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요한복음 1 장 16 절은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폭풍이 많을수록 은혜의 '파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모든 폭풍은 또 다른 은혜의 '파도'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이 은혜는 평안을 산출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이실 뿐 아니라 평안이시기도 하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에 평안 가운데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평안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2 권, 진정한 교회, 영문판, 376-37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2 권, 진정한 교회, 영문판, 1 장;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2 장

8/31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1:6-8, 22-23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입니다.

벤전 5:10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 4:33

33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고전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롬 12:4-6a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의 완결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엡 1:6-8, 22-23).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어 그분 자신 안으로 되돌리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영역이시며 요소이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어 영역과 요소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되돌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요소를 누린다.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 가고 있다. 에베소서 1 장 22 절과 23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으로써 세상을 초월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짓밟게 하였으며,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한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즉 교회에게 전달되었다. ... 머리께서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몸 또한 이러한 능력을 전달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이렇게 산출된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실질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요소이시며 영 하나님은 본질 이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순금(계 21:18 하, 고전 3:12)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을 실질로 지닌다. 금은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그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진주(계 21:21 상, 비교 고전 3:12)이신 아들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을 요소로 지닌다. 진주는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과 그분의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한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보석(계 21:18 상, 19-20, 고전 3:12)이신 영 하나님과 그분의 변화시키시는 일을 본질로 지닌다. 보석은 그 영의 변화시키시는 일과 그 영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금과 은과 보석은 삼일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의 다양한 누림들과 체험들을 상징한다. 이 모든 귀한 재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때 산출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재료들만 하나님의 건축물에 적합한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았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였다. 그는 은혜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가 체험한 주님께서 바로 그 은혜이셨다. 바울처럼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은혜로 취해야 한다. ...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는 오직 생명만을 원칙으로 삼는다. 무엇이든지 생명에 속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생명에 속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다. 이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실질로, 아들 하나님을 요소로, 영 하나님을 본질로 갖는 풍성한 은혜이며, 이 생명은 우리의 은혜가 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결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84-85, 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엡 4:29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엡 4:7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롬 16:20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16:23

23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갈 6:18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신성한 생명인 이 은혜, 이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은사들인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져온다. ...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고 동화할 때, 이 신성한 요소로부터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

9/1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6-8

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

7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8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생긴다.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으로 동화한 신성한 요소에 따라 다르다.

로마서 12 장에 있는 은사들은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그 은사들이 생명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누린다면 더 뛰어난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의 은사도 제한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사의 분량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있는 신성한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는 정도에 제한받기 때문이다. 로마서 12 장에 열거된 은사들은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적적인 은사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로마서 12 장에 언급된 은사들은 사람의 몸의 지체들이 지닌 능력과 같다. ... 6 절부터 8 절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목들은 생명에 속한 은혜의 은사들이다. 우리는 이 일곱 가지를 나열할 수 있다. 즉 신언, 섬김, 가르침, 권유, 나누어 줌, 인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포함한 이 일곱 가지 항목 각각이 하나의 은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340-34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은혜는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되는 신성한 요소이다. 은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 지고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주는 신성한 생명의 요소이다.

생명에 속한 은혜의 은사들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생명에 속한 은혜의 은사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기적적인 은사들에 주의를 집중하지 말라. ... 왜냐하면 기적적인 은사들은 나누어지게 하기 쉬운 반면에, 생명에 속한 은혜의 은사들은 건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몸의 생활 안에서 체험이 많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속한 은혜의 은사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 장에서 그는 교회생활에 필요한 항목들 가운데 기적적인 은사들은 열거하지 않았다. ...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했다(고전 14:12, 26). 로마서에서 그의 관심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건축하는 것에 있지 않았고 몸을 건축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책에 기적적인 은사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341, 346 쪽)

에베소서 4 장 29 절은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나쁜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남을 해치고 남에게 손상을 입히는 말이나 가치 없는 말’을 의미한다. 우리의 대화는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합당하게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은 주로 우리의 말함에 의해 성취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건축하기에 좋은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말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한다. 우리의 말은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8 장, 4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8, 48-49 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341 장

9/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3:2-6, 8-11 (2, 8-9)

-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 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5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 6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전 9:17

17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해 넣는 것이며, 그분의 믿는 이들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엡 3:8-10).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엡 1:10). ...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분 아래 우리가 통일되도록 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에베소서 3 장에서 바울은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첫째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킨다. 둘째로, 그것은 사도의 청지기 직분을 가리킨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의 청지기 직분이 된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 안에서 세워졌다(9-11 절). 그러므로 사도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분 (헬라어로는 '경륜'과 동일한 단어임) 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2 절, 고전 9:17).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는

것이지만, 사도의 청지기 직분은 단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 장, 47-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3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 자신에게 청지기 직분으로 주어진 것을 밝히지만, 청지기 직분을 받은 이로서 자신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라고 말한다 (8 절). 만일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가 청지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자격이 있다. ... 우리는 바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이후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그의 완결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은혜이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에베소서 3 장 2 절에서 언급되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8 절에서 언급된다. 그러므로 은혜의 청지기직분은 은혜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믿는 이들이 누리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것이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 그분을 표현하는 한 교회, 한 몸, 한 유기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인 믿는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영원한 경륜을 세우셨다. 결국 이러한 분배하심에 의해 그분은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그분 자신을 섬세하게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실 것이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 장, 48-49 쪽)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3 장의 문맥에 따르면,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때, 그 풍성은 은혜가 된다. 바울의 사역은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는 이들이 누리도록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비행기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음식을 분배하지만 조리법을 분배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에게 분배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사역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 모든 성도가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주입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급우들 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청지기 직분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8 장, 2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0 장

9/3 토요일**아침의 누림****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엡 3:8, 14-21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엡 2:7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시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사실상 그분 자신인 그분의 풍성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보았다. 이 풍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된 후에, 우리는 그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할 부담을 취해야 한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풍성은 그분의 경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풍성은 청지기 직분이다. 이 풍성이 우리에게 의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때, 이 풍성은 하나님의 분배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를 때, 그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것은 그들 안으로의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륜과 청지기 직분과 분배를 갖고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8 장, 2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사람들의 누림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 안으로 이 은혜를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이들 안으로 은혜로서 분배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의 분배이다.

에베소서 3 장 7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인 한 사역만 있을 뿐이다. '사역자'라는 단어는 '청지기'라는 단어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분배함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형제들이나 각 지방에서 건축의 일을 돌보는 장로들만 사역자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곧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역의 일부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관념에 속아서 여러분 자신은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역자는 다만 섬기는 사람이다. 복음의 사역자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만일 어떤 젊은 자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면, 그 자매는 신약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젊은이들이여, 부모님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라.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역을 수행하라고 권한다. 비록

주님의 회복 안에 수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한 사역만 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여!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에 따른 것이다. 은혜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임을 의미한다(고전 15:10, 고후 12:9). 이러한 생명 공급이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이 운행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사인 어떤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 장 7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 ... 이 능력은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은사이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를 제시하거나 단지 문자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복음은 한 인격과 그분의 모든 풍성이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믿는 이들 안으로 은혜로서 공급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산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은혜의 청지기 직분의 목적이었다.

에베소서 3 장 3 절과 5 절에 따르면, 우리의 사역은 영 안에서 비밀을 계시받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보았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그 비밀을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8 장, 272-2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성전의 재건을 위해 뒤처지지 않음, 13 장
고린도전서 라 이프 스타디, 2 장

하나 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0, 28 장

2022. 8. 29 ~ 2022. 9. 1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12 장

찬송: 820 (英) 그리스도의 풍성을 (中:592)

- 1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우리는 주의 충-만- 돼 다 주를 표현한다네.
- 2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누-림-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충-만-돼 주 교회로서 나타나.
- 3 가나안 땅의 소산은 다 주의 풍-성- 예표해 이 소산 통한 성-전-은 주 교회 상징한다네.
- 4 아담의 충만인 하와 아담에게-서- 나왔네 주님의 충만인- 교-회 주님에게서 나왔네.
- 5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안에-서- 누릴 때 그리스도로 충-만-돼 주님의 표현 된다네.

9/4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1, 4, 14, 16-17, 42, 51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42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 2:21

21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계 21:2-3, 2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